

2025년 3월 29일(토)

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

- 1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
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
주께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
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
- 2 시험 걱정 모든 괴롭없는 사람 누군가
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
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 볼 수 있을까
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
- 3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
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
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
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

◆ 합 심 기 도

1. 개인의 기도제목과 교회를 위한 기도
2.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

◆ 3월 31일(월) 말씀

마가복음 8:13~21 『기도행전(23) -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』

기도 담당

3/25(화)	3/26(수)	3/27(목)	3/28(금)	3/29(토)	3/31(월)
박재동 장로	길강현 장로	이윤익 장로	김홍수 장로	정명수 장로	고성호 장로

이른아침예배

(예수님을 따라가는 40일 기도행전)

인도 : 엄재광 목사

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
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
 찬 송 369장 다 함 께
 기 도 정명수 장로
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7:24~30 인 도 자
 찬 양 갈보리 산 위에 새벽찬양대
 설 교 · 『기도행전(22)-간절함 위에 간절함을 더하다』 엄재광 목사
 합 심 기 도 다 함 께
 축 도 설 교 자

< 오늘의 묵상 >

-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
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
-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
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
-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
간구하거늘
-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
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
-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
부스러기를 먹나이다
-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
하시매
-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